

[ 강국의 길에서 분발정진 · 새 로정에서 힘차게 전진 ]

# 중국 고속철도 , 부흥의 길에서의 빛나는 명함



9월 6일, G9505호 고속열차가 항주시 동려현 경내의 특대교를 달리고 있다. (드론사진) / 신화넷

세월은 꿈을 새기고 분투는 화려한 장을 열어나간다.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전망을 개척하는 시대의 나팔소리가 이미 울려 퍼졌으며 우리는 새 중국 창건 75주년을 맞이했다.

시간은 가장 진실한 기록자이자 가장 위대한 실천자이다. 새 중국 창건 75년간 중국공산당의 령도 아래 중국 인민은 분발노력하고 간고하게 창업해 중국특색 사회주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발전 성과를 창조했다. 우리는 가난하고 낙후하던 데로부터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발전하여 천백년간 중화민족을 괴롭혔던 절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발전사에서 위대한 기적을 창조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하여 계속 분투하고 분발정진함으로써 중국특색 사회주의 새시대를 개척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더욱 완비한 제도적 보장, 더욱 튼튼한 물질적 기반, 더욱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했다.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기까지,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대를 쫓아간 데로부터 시대를 선도하기까지 오늘날의 중국은 이미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민족부흥의 위업을 추진하는 새 로정에 올라섰다.

새시대, 새 로정에서 고속철도선은 중국의 드넓은 대지에서 끊임없이 연장되고 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고속철도는 우리나라 장비제조의 아름다운 명함이고” “부흥호 고속열차는 시대를 쫓아가던 데로부터 시대를 선도하기까지의 관건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고속철도 기술은 국제표준을 세웠다.”고 매번 감회깊게 찬사를 보냈다.

최근 중국국가철도그룹유한회사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철도의 총 연장거리는 16만킬로미터를 돌파하고 고속철도의 거리는 근 4만 6,000킬로미터를 돌파하여 세계 1위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 “16만킬로미터의 철도를 건설하자는 100여년전에 제기된 이 구상이 새시대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철도박물관 부관장 부매승이 말했다.

새 중국 창건 75년 이래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중국 철도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대를 쫓아가던 데로부터 시대를 선도하기까지의 력사적인 도약을 실현했다. 오늘날 밤낮으로 질주하는 부흥호는 새시대 중국의 힘, 중국의 정신, 중국의 형상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두 레루’ 이야기에 깃든 새시대 중국의 힘

중국철도과학연구원 원사관(院史館) 앞에는 여러가지 침목을 연결해 만든 100미터 되는 레루가 전시되어 있다. “최초의 나무침목에서 후날의 세멘트침목과 넓은 세멘트침목 그리고 현재의 일체형 침목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시대의 축소판이며 모두 중국 철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견증했다.” 중국철도과학연구원그룹유한회사 총경리 리학봉이 말했다.

최근에 개통된 여러 고속철도선에는 모두 최첨단 100미터 고속 고하중 레루(重軌)를 부설했다.

“레루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달리려면 레루 용접이 적은 100미터 고속 고하중 레루를 부설해야 한다.” 국가철도그룹 전력공업부 주임 증현해는 “25미터 레루에서 100미터 고하중 레루로의 전환을 실현한 것은 신형 거구체제의 우위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철도과학원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거쳐 레루의 최적 기술 변수를 확정하고 안전강철그룹, 반지하강철그룹, 포두강철그룹, 무한강철그룹 등 국내 강철기업들과 연합하여 난제를 돌파한 동시에 시험생산에 착수했으며 기업, 대학교, 과학연구기구 등 다방면과 협력하여 100여개의 국내외

특허기술 돌파를 실현했다.

현재 중국의 고속 고하중 레루는 1메터당 직선성(直度) 오차가 A4 용지 3장의 두께를 초과하지 않으며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중국의 힘으로 인해 오늘날 중국의 철도망은 전국 99%의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에 보급되고 고속철도망은 전국 96%의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보급되어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철도망과 가장 발달한 고속철도망을 건설함으로써 현대화 중국의 웅대한 로정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로 되었다.

자체 개발 ‘고속철도 두뇌’에 깃든 중국의 정신

올해 6월, ‘부흥호 고속열차’가 국가 과학기술진보상 특등상을 수여받았다. 시속 350킬로미터의 고속열차는 한대당 대략 4만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었는데 혁신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중국중차그룹 수석과학자 왕군의 소개에 따르면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은 ‘고속열차 두뇌’로 알려져 있다. 과거 우리는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다 보니 동력분산식 열차의 지속적인 기술 업그레이드 면에서 제약을 받았다.

“혁신 주동권, 발전 주동권을 우리의 수중에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 국가철도그룹은 기술난제를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시험플래트홈이 없으면 자체로 개발해내고 네트워크를 구매하기 어려우면 스스로 연구제작했다. 기술문서에서 시스템 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하드웨어 규격에서 부품 테스트, 코드 디버깅(代碼调试)에 이르기까지 5년이 걸렸으며 최종적으로 고속열차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의 관건적 기술을 돌파했다.

오늘날 이 발달된 자유형 ‘두뇌’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기존 제품의 60배, 전송 용량은 100배 향상되었다.

중국 고속철도는 이러한 자립자강을 추구하는 중국의 정신에 의거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도입, 소화, 흡수, 재혁신에서 자주적 혁신으로의 전환을 실현하였으며 중국의 속도를 부단히 경신하고 중국의 ‘기둥’을 세웠다. 부흥호가 채택한 254개의 중요한 표준 가운데서 중국표준이 84%를 차지한다.

혁신에는 끝이 없다. 현재 중국중차그룹 장춘, 청도 두 기지의 생산라인에서는 차세대 부흥호 동력분산식 열차인 CR450 견본 열차의 생산이 한창으로 올해말에 본격적으로 조립을 완성하게 되는데 세계 고속열차의 여러 가지 기술 공백을 메우게 된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김정은, 국경절 연설서

## 전면적 경제 발전 및 국방 공고화 주문

조선이 9일 국경절 76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이날 평양에 위치한 로동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을 만나고 국가 사업 현황과 금후 사업 방향과 관련한 연설을 통해 전면적 경제 발전과 국방 공고화를 주문했다.

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금년 이래의 국가 사업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은 경제의 전반적인 장성추이를 견지하고 기간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이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경공업과 도시경영을 비롯하여 인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부문들에서 보다 개선되고 변화된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사 작황도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괜찮다. 금년 이래 국방 연구와 생산에서 중요 성과들을 획득함으로써 경이적인 군사력을 확보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올해 경제사업 결실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기

간공업부문에서는 올해까지 완결하게 되어있는 계획들을 끝내어 국가적인 생산력을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건설부문에서는 집을 철저히 보장하며 올해 계획을 완결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올해 농사 결속과 다음해 농사차비를 잘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또 현 경제의 요구에 맞게 국가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질 것을 요구하였다. 김정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조선 주변의 군사적 안전 환경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블럭(同盟) 체계의 무분별한 확장 책동과 그것이 핵에 기반한 군사블럭이라는 성격으로 진화됨에 따라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조선은 “군사적 강세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조치들을 기울여야 한다. 김정은은 핵력량을 완비하여 국가의 안전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은은 강력한 군사력 보유가 진정한 평화이고 국가 발전의 절대적인 담보라고 강조했다.

/ 신화넷

## 중국과 필리핀, 남해 문제 량자 협의체 단장 회동



11일, 중국과 필리핀은 남해 문제 량자 협의체(BCM) 단장 회동을 가졌다. / 외교부사이트

2024년 9월 11일, 외교부 부부장 진효동과 필리핀 외교부 부부장 라자로가 북경에서 중국-필리핀 남해 문제 량자 협의체(BCM) 단장 회동을 가졌다.

량측은 중국과 필리핀의 해양 관련 문제 특히는 선빈초(仙賓礁)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측은 선빈초 문제에 대한 원칙적 립

장을 재천명하고 해당 선박의 즉각적인 철수를 필리핀측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측은 자국의 주권과 <남해 각국 행위 선언>의 엄속성과 유효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표했다. 량측은 또한 남해 문제 량자 협의체 등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 국제방송

## 중국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세계의 약 30% 차지

국가통계국이 10일 발표한 <새 중국 75년 경제사회 발전 성과 시리즈 보고서>에 따르면 75년의 발전을 거쳐 중국의 산업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며 국제경쟁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2010년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2022년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2%를 기록, 글로벌 산업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부상했다.

/ 신화넷

## 해리스와 트럼프, TV 토론서 서로 비난



9월 10일, 미국 부통령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오른쪽)와 미국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필라델피아 대통령 토론 미디어센터에서 TV 토론에 참

석했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TV 토론서 서로를 맹렬히 비난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의 선거 상황은 교착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화넷

##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리용 고위급 회의 서울서

중국: 효과적인 안보 처리 기제 구축해야

제2회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리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가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중국측에서는 외교부 군축사(司) 부사장 마승곤이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했다.

마승곤은 10일 열린 정부대표 워킹 회의에서 AI의 군사적 응용은 국제 평화·안보뿐만 아니라 전인류의 복지·미래와 관련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AI 대국으로서 AI의 발전·보안·치리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중국측은 세계 평화와 안보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공동·종합·협력·지속가능한 안보관을 가지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리념을 실천하는 한편 대화와 협력을 통해 AI의 군사적 응용을 규범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모색하고 개방



2018년 1월 23일,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공항에서 촬영한 미국 MQ-9 무인기. / 신화넷

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안보 처리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I를 통한 군사력량 강화 효과는 현저한바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 각국 특히 대국은 관련 기술을 리용할 때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의 안보와 관심사를 확실하게 존중해 오해와 오판을 피하고 군비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 각국은 ‘선을 위한 인공지능’(智能向善) 원칙을 견지하고 평화·발전을 위반침하는 AI

의 군사적 응용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국제법과 공서량속(公同道義)과 선풍한 풍속(風俗)을 준수하고 관련 무기 시스템의 오용·악용·람용을 반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AI 관련 무기 시스템이 인류의 통제 아래 있도록 전생애 주기에 거쳐 필요한 인간-컴퓨터 인터랙션(人机交互)을 실시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기술의 발전 추세를 면밀히 추적하고 리스크 연구·판단 및 인재 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등급

/ 신화넷